

맥락에 기반한 통역 교육: AB 순차 통역 수업 사례 분석

임 순 정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회의를 비롯해 정상회담, 기자회견, 세미나, 좌담회, 강연, 기업 간 미팅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국제회의 통역사들은 의사소통 전문가와 문화의 매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전문 교육기관인 통역번역 대학원이다. 1979년 국내에 통역번역 대학원이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 년간 통역번역 대학원 졸업생들은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훌륭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역 방식은 동시통역, 순차통역인데, 연사의 발화와 통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과 달리 연사가 발화를 마친 이후에 통역이 이어지는 순차통역은 통역의 품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통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정

도로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지닌 클라이언트나 청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통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순차통역의 품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순차통역은 통역번역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역 유형으로 재학 기간 내내 꾸준히 훈련을 받는 통역 방법이다. 출발어 발화의 의미 이해와 분석 그리고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이라는 순차통역의 기본 원리와 노트테이킹이라는 중요한 순차통역 기술을 배운 1학년들은 2학년에 진학해 졸업 후 실제 통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역 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높은 난이도의 출발어 텍스트¹⁾를 이용해 실무 훈련을 받게 된다. 추상적이며 전문적인 어휘가 다수 내포되어 있으며, 문장이 길고 통사 구조가 복잡하며, 정보의 양이 많고 생소한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출발어 발화를 통역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은 출발어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 표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통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출발어 발화를 단편적이며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정보의 누락과 왜곡 등의 통역 오류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한국어와 프랑스어와 같이 언어 구조가 상이한 언어쌍의 통역에서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 표현에 집착하며 도착어 등가를 찾아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통역을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도착어 담화가 생산될 위험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맥락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부적합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담화의 상황, 주제,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미의 전달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발화를 구성하는 언어 요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화의 전달 및 이해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맥락은 의사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통역 역시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수한 품질의 순차통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한 다음,

1) 박혜경(2006), 최문선(2012)은 효과적인 통역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출발어 텍스트는 점진적으로 어려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정 중심 문제해결보고서(compte rendu intégré des problèmes et décisions, 이하 CRIPD)의 재표현 기능²⁾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맥락을 감안하여 다시 통역하게 한 AB 순차수업 운영 사례를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2. 순차 통역과 맥락

2.1 순차통역 상황과 맥락

통역은 번역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지만, 통역과 번역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 방식에 있다. 번역은 텍스트라는 문어(文語)를 사용하여 소통한다면 통역은 담화라는 구어(句語)를 사용한다.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과 달리 통역은 연사, 청중 그리고 통역사가 지정된 시간에 한 공간에 모여야 진행될 수 있다³⁾. 특히, 연사가 출발어로 발화를 마친 다음 통역사가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착어로 통역을 수행하는 순차통역의 경우, 청중들이 원문과 통역을 직접적으로, 연속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상황 및 통역 품질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연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화를 하는데, 통역사의 발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청중의 입장에서 과연 원문의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꼼꼼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사의 발언에 출발 언어권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는데, 통역을 듣는 도착 언어권 청중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회의장에는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번역에 비해 통역 이용자의 반응은 즉각적인데, 그 이유는 통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이 맥락(Context)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자인 이성범(2003: 9)은 맥락에 대해서 ‘악명이 높게도 다루기 힘든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통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 2) 이 때 재표현은 통역학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출발어 담화를 도착어 담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어 담화의 표현을 수정하여 다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원격통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차통역에서는 통역 행위의 주요 참여자가 시공간을 공유한다.

이유는 아마도 맥락이 상당히 광범위하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가의 자유와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하티ム & 메이슨(Hatim and Mason 1997)과 구트(Gutt 1991)는 번역가의 선택에 근거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맥락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티ム & 메이슨(1997: 240)은 맥락이란 사용된 언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텍스트 외적인 환경(the extra-textual environment)이라고 설명했고, 구트(1991: 25)는 청자가 인식하는 세상에 대한 가정(assumption), 즉, 인지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의 일 부라고 규정했다. 구트가 말하는 맥락은 물리적 환경, 기억이나 전후 대화 혹은 사회문화적 지식에서 비롯된 축적된 정보이며, 청자가 선택하는 가정이 화자가 의도하는 가정과 일치할 때 비로소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트의 주장을 다언어 커뮤니케이션 상황인 통역에 적용해보면, 통역사는 연사가 의도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선택해야 만이 연사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도착어권 청자들이 동일한 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착어 발화 맥락을 구현해야만 도착어권 청자들이 화자가 의도한 가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통역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사의 가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통역사의 인지 환경이 충분히 광범위해야 하며, 자신의 인지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흡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순발력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발어권과 도착어권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도착어권 청자의 인지 환경이 출발어권 청자의 그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도착어권 청자들이 화자가 의도한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재표현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순차통역 상황에서 맥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1〉 순차통역 행사 개요

행사명	에코-테크네 인문학을 향하여(Towards the Eco-Techne Humanities) 유럽과 동아시아 사유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행사 일시	2019년 5월
행사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강의실
의뢰처	이화인문과학원
참석자	연사, 진행자, 토론자, 청중
주제	중국 철학, 도가 사상, 장자의 사상, 양생술

위의 도표에 기재된 정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일환으로 개최된 해외 석학 초청 강연에 대한 것이다.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파리-디드로 대학(L'Université Paris-Diderot) 교수이자 인문과학의 집(la fondation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의 타자성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연사 프랑수아 줄리앙(François Julien)⁴⁾은 ‘유럽과 동아시아 사유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회는 진행자의 주관 하에 연사의 발표와 2명의 토론자와 함께 하는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연사의 이력과 강연회 주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철학에 대한 심오한 대화가 오가는 행사였다. 행사의 통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사 및 토론자 등 행사 참석자들의 발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수사학적 접근이 필요했다. 다음은 토론과 관련해 통역사가 추후 측으로부터 사전에 전달 받은 자료의 일부이다.

다음 질문은 오늘의 주제 내부에서 나온 것인데요. 신체를 ‘질료’ 차원으로 분리하지 않았지만 성리학자들은 적어도 신체의 활력과 생명력에 중심을 두는 양생보다는, 신체를 포함해 생활의 모든 미시적 국면에서 반성과 자기 극복을 강조하는 ‘수신 修身 self-cultivation’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유학(Confucianism)에서 수신은 도덕성을 신체에 내면화시켜 신체를 도덕적 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생과 수신은 가장 큰 차이는 도덕성의 개입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양생’과 ‘수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혹은 더 나아가 체계나 이념에 이끌리지 않는, 생명의 목적 없는 실현과 공동체적 삶 혹은 도덕적 체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4) 프랑수아 줄리앙은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그리스 문명 및 중국학 연구자로 중국과 유럽의 사유를 ‘외부로부터 해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구별되는 윤리와 미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 받는 학자이다. 그간 30여 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발간했는데,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현자에게 고정관념은 없다(Un sage est sans idée: ou L'Autre de la philosophie)’,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Il n'y a pas d'identité culturelle)’, ‘불가능한 누드(Le Nu impossible)’, ‘맹자와 계몽철학자의 대화(Fonder la morale. Dialogue de Mencius avec un philosophe des Lumières)’, ‘전략(Conférence sur l'efficacité)’, ‘장자, 삶의 도를 묻다(Nourrir sa vie: à l'écart du bonheur)’ 등이 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학은 학문 분야의 특성 상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기 때문에 담화에 대한 언어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통역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회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지식을 보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사와 통역사 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지 환경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역사는 평상시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통역을 의뢰 받으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회의 주제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여 연사의 발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지적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통역사가 봉착하게 되는 또 다른 결정적 어려움은 통역사는 행사의 외부인(outsider)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회의 참석자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학문적 성향과 특징, 개인적인 에피소드, 독특한 말습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이고 미묘하지만 발화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통역사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상당한 인지 부하를 유발한다. 이 같이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인 정보는 사전에 습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예측하기도 힘들며 암묵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역 현장에서 통역사에게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회의와 같이 연사들이 세련되고, 섬세하고, 현란한 언어 표현을 구사할수록 발화의 이해와 재표현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존스(Jones 2002), 셀레스코비치 & 르데레르(Seleskovitch and Lederer 2002), 크레머(Kremer 2005)를 비롯해 다수의 통역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sens), 연사의 말하고자 하는 바(vouloir dire)⁵⁾, 담화의 메시지를 누앙스까지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사의 담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담화의 이해 과정⁶⁾은 표면적으로 사용된 음운, 어휘, 언어적 형태에서 출발하며, 이들의 연결 관계인 통사 구조를 파악

5)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86: 295-297) 참조

6) 백경선(2018)의 텍스트 읽기 처리 방식 참조

하고 더 나아가 담화의 구조를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에 도달해서 발화자의 논지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통역에서는 연사의 발화에 사용된 언어 표현에 집착하는 순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인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논지의 일관성을 놓치고 단편적인 언어 표현만 뇌리에 남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출발어 담화에 사용된 수사학적인 언어 표현에서 의미만 추출하여 전달하는 통역은 분명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담화를 구성하는 언어적 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특히 위의 강연회와 같은 인문학 관련 행사의 경우, 언어 표현은 단순한 의미의 전달 그 이상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역사는 연사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착어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재표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합한 맥락(relevant context)을 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사의 프로필과 입장, 주제에 대한 지식, 행사의 취지와 목적, 관련 표현 등 통역 커뮤니케이션 맥락 등을 감안하여 연사의 맥락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착어 청중이 수용 가능한 맥락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해야 한다.

2.2 순차통역 메커니즘과 맥락

통역사에게 주어지는 순차통역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차통역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존스(Jones 2002: 5)는 순차통역이란 통역사가 연사의 코멘트를 온전히 내지는 적어도 중요한 대목을 경청한 다음 연사의 발화를 들으면서 노트한 내용의 도움을 받아 연설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통역사는 연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해당 통역 방식을 순차통역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통역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수행능력(Effor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순차통역 과정과 원리를 설명한 질(Gile 1995)은 순차통역을 발화 청취 및 노트테이킹(Note Taking)이 이루어지는 1단계와 도착어 발화 생산이 이루어지는 2단계로 구분하고, 순차통역 1단계에서는 출발어 발화 분석 및 이해, 노트테이킹 작성, 단기 기억 저장, 조율이 그리고, 순차통역 2단계에서는 재표현, 노트테이킹 읽기, 단기 기억 환기, 조율이라는 수행능력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이론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수행을 기준으로 순차통역 과정을 출발어 발화 청취 단계와 도착어 담화 생산 단계로 구분하지만 실제 통역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회의 통역사들은 통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지적 활동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일례로 통역사들이 출발어 담화를 들으면서 도착어로 노트를 하는 것은 통역사들이 이미 재표현을 염두에 두고 연사의 담화를 청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발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통역사는 이미 도착어 담화 발화를 위한 인지적 활동을 시작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역사의 담화 이해는 앞서 2.1.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담화의 이해 과정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담화의 이해는 담화의 구성 요소 간의 통사적 연결 관계를 통해 담화의 논지에 도달하는 상향식 처리과정(bottom up processing)을 거치지만, 통역에서의 담화 이해는 담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연사가 구축한 담화의 전체적인 틀에 유념하며 연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 형태인 음운, 어휘, 통사적 관계를 분석하면서 담화를 이해하는 하향식 처리과정(top down processing)을 거친다. 이처럼 통역사의 담화 이해가 일반인의 담화 이해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통역사가 출발어 담화의 청자인 동시에 도착어 담화의 화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역에서 요구되는 담화 이해의 수준은 담화 처리 속도와 담화 이해 깊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담화 이해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연사의 발화를 듣고 정보와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에 그쳐도 무방하지만 통역사는 연사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 담화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를 도착어권 청중에게 언어를 전환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은 출발어 담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일 뿐 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발어 담화를 둘러싼 인지적 맥락(주제 지식과 배경 지식, 사회문화적 지식 등), 담화가 일어나는 시공간 및 참여자와 관련된 상황적 맥락(참석자들의 성향과 입장, 발화의 의도와 목적 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연사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주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었지만 경제, 사회, 문학, 디자인, 영화, 국제관

계, 환경, 에너지, IT, 의학 등 수없이 다양한 분야의 회의 및 행사에서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국제회의 통역사는 특정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행사 관련 정보를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습득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상황적 맥락 관련 정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클라이언트와 통역사 간에 지속적인 소통 관계 구축을 통해 통역사가 점진적으로 인지적 및 상황적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통역 서비스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3 순차통역 교육과 맥락

공인된 국제회의 통역사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국내에서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는 방법은 학사 과정을 마친 뒤 통역번역 대학원에 진학하여 2년간 통역 교육을 받은 후 졸업하는 것이다. 통역번역 대학원의 졸업장이 자격증처럼 간주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역번역 대학원은 국제회의 통역사 양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통역번역 대학원에서는 전공 언어 관련 지식(이해력 및 구사력), 배경지식 및 주제지식(경제경영, 외교통상, 과학기술 등), 통역 관련 실무 능력(통역 능력, 직업 윤리, 품성 등), 통역 관련 학문적 지식(통번역학과 인접학문을 통해 통번역현상 이해 및 분석) 등을 통역 능력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언어숙달 수업과 주제지식 강화 수업이 일부 개설되어 있지만 국내 주요 통역번역 대학원 커리큘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실무 관련 수업이다. 이는 통역 능력의 함양이 실질적으로 실무 수업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순차통역, 문장 구역, 동시통역, 모의회의 등 다양한 실무 수업을 통해 각각의 수업별로 해당 통역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업의 진행이 요구됨을 뜻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순차통역 수업의 진행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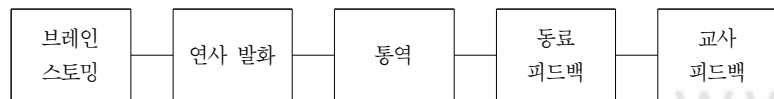


그림 1 순차통역 수업의 진행 방식

위의 진행 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순차통역 수업 방식이다. 실제 통역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진행되는 순차통역 수업에서 연사의 발화와 통역은 실질적인 통역 연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연설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통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피드백(feedback)이 통역 연습 전후에 각각 배치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연설문의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사가 학습자들에게 기본 정보(연사, 연설 시점, 주제와 제목)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브레인스토밍의 본래 목적은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통역 수업에서의 브레인스토밍은 연사가 제공하는 연설문의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담화의 인지적 맥락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연사가 누구인지, 연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지 예측해보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학습자들이 통역을 하기 전에 연설문을 비판적으로 청취하고 언어 표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연설문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브레인스토밍의 품질(quality)은 주제지식 및 배경 지식과 언어 지식 등 학습자의 인지적 자질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통상적으로 연설문 주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학습자가 우수한 통역 결과물을 제시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요 아이디어와 언어 표현 목록을 작성한 학습자들은 연사의 발화를 듣고 난 다음 통역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을 통해 통역 기술이 어느 정도 연마된 다음에도 연사의 발화 속도, 주제의 유형 및 난이도 등은 학습자들의 통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료와 교사의 피드백 과정에서는 연설문, 즉 담화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출발어 담화의 내용 누락 및 왜곡과 어색한 도착어 표현 등 통역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피드백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통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위해 자신의 통역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학습 방식의 변화 및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정확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으로 원문 대비 통역에서 내용적으로 왜곡 내지는 누락된 부분과 도착어 표현이 어색한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담화 맥락에 부합하는 적절한 통역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통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맥락(담화 분석), 인지적 맥락(주제지식 및 배경 지식), 상황적 맥락(발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기준으로 상세한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물리적으로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서 피드백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통역 연습을 실시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드백과 통역 연습 간의 물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같은 물리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CRIPD의 재표현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통역 수업 시간에 학습 및 피드백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맥락에 적합한 표현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였다. CRIPD는 수업 시간에 담화 이해의 부족, 도착어 표현의 한계, 시간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 통역 기술 조율의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역 오류의 원인을 이해한 다음 도착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도구이다. 수업 시간에 전달된 동료 및 교사 피드백 덕분에 학습자들은 연사가 의도한 가정에 대해 개선된 이해를 바탕으로 CRIPD의 재표현 구간을 작성하게 된다. AB 순차통역은 출발어 발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도 도착어 청자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도착어 발화가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CRIPD를 이용해 도착어 담화의 표현을 수정하는 연습이 학습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⁷⁾. 다음은 학습자들의 수업 중 통역과 CRIPD의 재표현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3. CRIPD 분석을 통해서 본 맥락에 기반한 통역의 실제

3.1 운영 방식 및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 사회문화통역과 2019년 2학기 과학기술통역을 수강한 통역번역 대학원 한불과 2학년 재학생 6명의 CRIPD 과제물을 분석한 것

7) 임순정(2019b) 참조

이다. 매 수업마다 통역을 수행한 학생은 자신의 통역에 대해 CRIPD를 과제로 제출했다. CRIPD란 녹음된 자신의 통역을 원문과 비교 분석하여 들으면서 통역 과정에 대해서 회고적으로 고찰하며 통역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제이다. 단순히 결과물의 오류를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CRIPD는 번역 교육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 학습 도구⁸⁾이다. 통역 교육에 적용해 활용되고 있는 CRIPD는 학습자가 녹음된 자신의 통역 결과물을 원문과 비교하면서 다시 듣고, 회고적으로 통역 과정에 대해 고찰한 다음 통역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통역해보는 것이다. 원문, 통역문, 자기 평가, 재표현으로 구성된 CRIPD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통역 과정 및 통역 기술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역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학습자의 통역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인지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학습자의 통역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맞춤형 학습 조언을 가능하게 한다⁹⁾. 이는 과정중심 번역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번역일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육적 의의(학습자의 번역 능력 진단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학습자의 자기성찰 기능,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 강화 등)¹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실시한 본인의 통역을 자기평가한 다음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통해 강조한 맥락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다시 통역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염두에 두며 과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강의를 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2학년 순차통역 수업에서 주제별로 양방향 통역을 실시하는데 연구의 분석 대상은 AB 순차통역에 국한시켰다. 주어나 동사의 생략이 두드러지고 통사적 결합이 비교적 느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한국어를 구체적이며 정확한 프랑스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출발어 담화의 암묵적 표현을 명시화할 필요가 제기되기 때문에 출발어 발화의 맥락에 대해 정

8) 질(Gile 2004) 참조

9) 임순정(2019a) 참조

10) 김자경(2020) 참조

확한 이해가 선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용이한 언어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B언어로의 통역은 출발어 발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다 할지라도 맥락에 적합한 도착어 표현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재표현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된 연설문은 여성, 장애인, 결혼제도, 빈곤, 폭력, 한류, 관광, 명품, 음식, 스포츠, 문화콘텐츠, 잊혀질 권리 등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다룬 것들과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기후, IT, 이동통신, 증강현실, 노화, 질병, 환경호르몬, 항공, 도시화 등 과학 기술 관련 주제들을 다룬 것이었다. 350단어의 연설문을 3분 30초 동안 발화한 원문, 자기평가, 통역과 재표현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제출한 52개의 CRIPD를 분석한 다음 유의미한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3.2 사례 분류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 및 분석 대상으로 삼은 2학년 학습자들의 CRIPD는 사회문화통역과 과학기술통역 수업 시간에 실시한 통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과제물이다. 사회문화통역과 과학기술통역은 순차통역의 심화단계로 통역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통역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분야별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 및 표현을 습득하고, 기본 원리와 함께 최신 동향을 숙지하는 등 제반 지식을 쌓으면서 통역 기술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통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역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 사회문화통역과 2019년 2학기 과학기술통역을 수강한 한불과 2학년 재학생 6명의 52개의 AB 순차통역 CRIPD 과제물을 분류 및 분석하였다. 예문은 3가지 기준, 즉, 언어적 맥락, 인지적 맥락, 상황적 맥락에 따라 분류하였다.

3.2.1 인지적 맥락: 주제지식 및 배경지식

<원문 1>

UN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 약 6억 명 이상이, 아직도

극심한 빈곤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8억 명이 영양결핍 상태입니다. 5세 미만 어린이들 중 2억 명 이상이,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통역>

Selon l'ONU, aujourd'hui encore, 600 millions de personnes vivent dans l'extrême pauvreté. 800 millions souffrent de famine. Et plus de 200 millions d'enfants n'ont même pas déclaré leur naissance et sont laissés de côté en matière de services administratifs.

<자기평가>

노트에 'sous-alimentation'을 별로 적어 두었는데 이번 주 스터디 하면서 '기아'를 계속 별로 표시해뒀던 것 때문에 발화할 때 잘못 나옴.

<재표현>

Selon l'ONU, aujourd'hui encore, 600 millions de personnes vivent dans l'extrême pauvreté. 800 millions souffrent de sous-alimentation. Plus de 200 millions d'enfants ne sont même pas déclarés à la naissance et n'ont donc pas accès aux services publics.

위의 예문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8년 아태 지역 SDGs 심포지엄에서 한 개막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학습자는 '영양결핍'이라는 용어를 잘못 통역했는데, 통역 오류의 원인을 노트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어휘(기아)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별표)와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양결핍'이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는 식량부족, 음식물 섭취 부족으로 인해 영양 결핍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아'와 '영양결핍'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맥락에서는 '영양결핍'을 sous-alimentation이라고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용어가 변별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예를 들면 비만과 영양 결핍에 대한 의학 회의)에서 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ous-alimentation, carence alimentaire, carence nutritive 등의 용어의 의미와 사용 관습(usage)을 분명히 인지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문 2>

단순동거는 법적 신분은 아니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정부로부터 결혼 가정과 거의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 돼 있

고, 상대에 대한 의무도 없으며 일방적 이별 통보가 가능합니다.

<통역>

Le concubinage n'a pas de statut légal mais les personnes en concubinage peuvent bénéficier de soutiens gouvernementaux, mais financièrement le couple est séparé.

<자기평가>

갑자기 정보가 쏟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다.

<재표현>

Les couples en concubinage n'ont pas un statut juridique. Mais ils peuvent avoir des enfants et bénéficient presque des mêmes aides du gouvernement que les couples mariés. Mais chaque concubin est économiquement indépendant. Le concubinage n'entraîne ni obligation et nulle procédure n'est requise pour y mettre fin.

<원문 2>는 가족 형태 중 하나인 동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총 7가지의 특징이 나열되고 있는데,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는 한국어와 달리 프랑스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는 주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자기평가에서 지적했듯이 정보의 나열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인지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보 누락이나 왜곡과 같은 통역 오류로 이어지기 쉽다.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설문 주제에 대한 제반 지식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의 이해와 처리를 수월하게 만들어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원문 3>

먼저, 태양열 에너지는 햇빛을 흡수, 저장하거나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통역>

L'énergie solaire thermique stock, absorbe et transforme la lumière en chaleur, ce qui pourra ensuite de générer de l'électricité

<자기평가>

흡수와 저장 순서를 바꿔서 발화함

<재표현>

le solaire photovoltaïque consiste à absorber et stocker la lumière. Elle est ensuite transformée en énergie thermique pour produire de l'électricité.

<원문 4>

태양열을 흡수하는 집열판을 이용해 빛을 한곳에 모아 높은 열을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은 고열을 직접 난방에 이용하거나, 물을 끓인 후 발생시킨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통역>

Avec le capteur solaire thermique, on capte la chaleur. Elle est utilisée pour le chauffage, ou, avec l'évaporation, on peut tourner la turbine

<자기평가>

물을 끓이다 노트에서 빠짐

<재표현>

Le capteur solaire thermique est conçu pour recueillir l'énergie solaire afin de produire de la chaleur. Elle est utilisée comme telle pour assurer le chauffage. Ou bien pour faire bouillir de l'eau. Ensuite la vapeur de l'eau fait tourner des turbines qui produisent de l'électricité.

<원문 3>과 <원문 4>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글에서 발췌한 예문들이다. 통역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은 정보의 나열을 처리할 때 구성 요소의 순서는 바뀌어도 무방하다고 배운다. 물론 일반적인 통역 상황이라면 나열을 구성하는 정보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제 되지 않지만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는 위의 담화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문 3>은 태양열 에너지의 생산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햇빛을 흡수하고 저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습자처럼 바꾸어 설명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도착어 발화가 생산된다.

<원문 4>와 같이 긴 문장을 잘라서 통역하는 것 역시 주의를 요한다.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에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문 4>의 통역과 같이 문장을 분리하여 처리하게 되면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는 것과 이 때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현상 간의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정보 집약적인 전문성이 높은 담화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담화를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2.2 언어적 맥락

3.2.2.1 어휘의 선택

<원문 5>

원문: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주연배우 배용준은 ‘욘사마’로 불리며 일본에서 국민대접을 받을 정도의 스타가 되었고, 드라마의 배경이었던 남이섬은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었습니다.

<통역>

Avec le succès de cette série, le principal personnage Bae Yong-joon surnommé Yonsama a été très apprécié au Japon. Et l’île de Nami est devenue un site incontournable pour les touristes japonais.

<자기평가>

‘국민대접’에 신경 쓰느라 ‘스타’를 살릴 생각을 못했다.

<재표현>

Grâce à son succès, l’acteur principal Bae Yong Joon - surnommé « Yonsama » dans l’Archipel -, est devenu une mégastar locale et l’île de Nami, lieu de tournage, a fait l’objet de pèlerinages des nombreux fans.

위의 예문은 “한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케이콘(KCON)”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대표적인 한류의 예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학습자는 ‘주연배우’, ‘국민대접을 받을 정도의 스타’, ‘드라마 배경’, ‘필수 방문코스’ 등의 표현을 통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한 통역이 이해 불가능한 수준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CRIPD의 재표현과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원어인이 사용할 법한 어휘와 표현을 구사해야 만이 통역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수월하며 AB 통역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3.2.2.2 문장의 구조

<원문 6>

이달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서비스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역>

A partir de ce mois, les activités d’intégration diurnes seront menées à

travers les centres de services afin d’aider les personnes majeures atteintes de trouble de développement à s’autonomiser et à participer à la société.

<자기평가>

문장이 길고 정보가 여러 개일 때 뒤에서부터 끌어와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음. 순서대로 나가면 능동태로 만들 수 있는 문장도 수동태로 바꾸면서 괜히 복잡해짐.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면서 너무 길다 싶으면 끊는 연습이 필요함.

<재표현>

A partir de ce mois de mars, les communautés locales mettront en place un service d’activités de jour pour les personnes majeures handicapées, afin de favoriser leur autonomisation et leur participation sociale.

다수의 학습자들이 AB통역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어의 선정이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출발어 담화의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 도착어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주어가 빈번하게 생략되는 한국어 문장을 통역하면서 적절한 주어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비문을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주어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위의 예문에서처럼 어떤 문장 요소를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능동 또는 피동 표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능동문과 피동문이 동일하지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의미가 바뀌거나 비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3.2.2.3 암묵적 표현

<원문 7>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오전에는 요리 등을 배우고, 오후에는 탁구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 6년 전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했는데 졸업 후 약 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주로 집안에서 지낸 장애인도 있다. 6개월 남짓 거주지 인근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물건을 던지는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해 곧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통역>

Les utilisateurs pourront bénéficier d’aide pendant la journée : le matin ils

participeront à des programmes de cuisine et l'après-midi ils pourront profiter de plusieurs jeux sportifs tels que le pingpong. Par exemple, un adulte souffrant de trouble de développement qui avait fini ses études supérieures était resté à la maison pendant 5 ans avec ses parents. Il avait fréquenté un centre de soin pour handicapé pendant 6 mois, mais à cause de ses comportements agressifs, il avait dû arrêter d'y aller.

<자기평가>

- 노트에 적힌 '이용자'를 어떻게 표현할 지 고민만하다가 '장애인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utilisateurs'라 함.
- 'dans la matinée', 'dans l'après-midi'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아침', '낮'으로 발화.
- 뒤에 나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이야기하기 위한 예시라 생각했으나 어떻게 하면 앞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지 몰라 단순히 'par exemple'로 처리해버림.
- '특수학교 고등부를' 'lycée'라 표현할까 하다 '중등교육을 마치다'로 하는 게 나올 거라 생각했으나 'secondaires'가 생각나지 않아 'supérieures'로 발화함.

<재표현>

Dans les centres d'accueil locaux, l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pourront participer à des activités culinaires dans la matinée ou à des activités sportives, tel que le pingpong, dans l'après-midi. Parmi les participants, on trouve même un jeune handicapé qui avait dû rester chez lui avec sa mère pendant près de 5 ans, après avoir fini ses études secondaires il y a 6 ans. Il avait fréquenté un centre d'accueil pour handicapés pendant 6 mois, mais y a renoncé à cause de ses comportements agressifs.

위의 예문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말부터 실시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소개하는 글의 일부이다.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이란 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을 포용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연사는 해당 서비스를 설명한 다음 필요성과 장점을 주장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 관계가 압묵

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업 시간에 통역을 하면서 학습자는 사례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Par exemple'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의 연결을 시도했는데 해당 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사용자의 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앞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담화가 생산되었다. CRIPD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발어 담화에 암묵적으로 처리된 의미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시화함으로써 도착어 담화의 언어 표현 간의 결속 관계가 강화되고 명확한 메시지가 도출되었다.

3.2.3 상황적 맥락: 발화 상황

<원문 8>

한국정부는, 올해 1월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통역>

Depuis le mois de janvier le gouvernement coréen a adopté la convention de 2012 relative à assistance alimentaire. Aujourd'hui cette participation à la remise du don alimentaire est le premier pas de la réalisation de cette promesse.

<자기평가>

노트만 보고 발화하다 보니 불필요한 단어가 추가됨.

<재표현>

Au mois de janvier le gouvernement coréen a adopté la convention de 2012 relative à assistance alimentaire. Et la présente remise du don alimentaire est le premier pas de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de 2012.

위의 예문은 2018년 케냐 나이로비 WFP(World Food Programme) 식량창고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쌀 전달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한 내용의 일부이다. 출발어 담화에 등장하는 '이 자리'는 다름이 아닌 연사가 참여한 식량 전달식 행사를 의미한다.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도 담화의 상황 맥락(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인지한 상태로 통역을 했다. 다만, CRIPD 과정을 작성하면서 행사의 의미가 보다 부각될 수 있는 개선된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원문 9>

3월부터는 장애가족의 이러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역>

Mais à partir du mois de mars, l'Etat souhaite alléger ce fardeau. Et ainsi a mis en place ces activités d'intégration. Les handicapés intellectuels âgés de plus de 18 ans pourront bénéficier de ces aides pendant l'après-midi et pourront participer à des programmes d'intégration sociale.

<자기평가>

- '고충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정확한 뉘앙스는 생각나지 않고 뒤에 나오는 '정부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생각나 주어를 '정부'로 잡음. 노트를 넘겨보니 다시 '정부가 주간 활동 시행'이라 적혀있어 급하게 'et'로 연결함.

<재표현>

Cependant, à partir du mois de mars, le poids du handicap sur les familles sera allégé grâce à la mise en place du service d'activité de jour. Les plus de 18 ans souffrant de trouble du développement bénéficieront d'un service d'accueil et des programmes d'intégration locale.

위의 예문은 출발어 담화의 발화 시점을 순간적으로 망각하면서 시제 오류가 발생한 예이다. 교사나 학습자가 준비해 온 연설문의 시점은 수업을 진행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연설문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아직 계획 중인 것처럼 말하거나, 이미 철회된 안전이 논의 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통역 훈련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연설문이 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상정하고 그 상황에 몰입해서 통역을 수행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역을 하면서 발화 시점을 혼동하게 되면 도착어 담화의 논리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및 논의

학습자들의 수업 중 통역과 CRIPD의 재표현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학습자들은 CRIPD에 기술한 통역 오류 외의 것들에도 수정을 가하며 최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도착어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IPD의 재표현은 전반적으로 주제 지식과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인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어 발화의 언어적 표현에 연연하지 않고 도착어 규범에 보다 충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발어와 도착어의 부호 체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메시지 표현 방식의 차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통역은 결코 단순한 언어 전환에 머물 수 없는 복잡한 인지적 활동이다. 서로 다른 언어권에 속하는 발화자와 수신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역사의 개입을 통한 발화자와 수신자간의 맥락의 조율은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다. 통역사의 개입 방식과 개입 정도는 통역 결과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통역사의 선택과 결정은 분명한 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통역번역 대학원에서 교육이 진행될수록 학습자들은 실제 상황에 가까운 높은 난이도의 출발어 담화를 이용해 통역 훈련을 받게 된다. 난이도가 높다 함은 주제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담화 구성 요소의 결속 관계가 복잡하고, 담화의 논리 구조가 단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화를 통역하면서 학습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통역이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이며,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깊이 있는 원문의 이해, 안정적인 노트테이킹 기술, 유려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신속한 정보 습득 및 활용 능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판단력,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통역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등 다양한 자질을 바탕으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몰입하여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연사, 청중 그리고 클라이언트 등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학습자들의 통역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AB 순차통역에서 통역을 방해하는 것은 비단 외국어 능력의 부족만이 아니다. 상황적 맥락과

인지적 맥락을 동원하여 연사의 발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절한 외국어 표현을 선택해서 통역할 때 통역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원문의 정보에 대한 충실성과 도착어 담화에 대한 충실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통역이 구현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참여자인 연사와 청중 더 나아가 주최자인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통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통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권영문 (1998) 「맥락과 용인 가능성」, 『현대 문법연구』 13: 157-179.
 김자경 (2020) 「과정중심 번역교육 도구로서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의 유용성 탐색」, 『통역과 번역』 22(2): 29-54.
 김현정 (2017) 「프랑스어 작문 교수/학습의 실제 - 읽기/쓰기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111: 63-91.
 백경선 (2018)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고찰과 FLE 학습자 텍스트분석의 사례」, 『불어불문학연구』 114: 315-337.
 박혜경 (2006) 「국내 통역대학원 교육방법론의 재고 - 1학기 순차통역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61-80.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이경희 (2020) 국내 학부 통번역 교육과정 현황 고찰, 『번역학연구』 21(4): 115-150
 이성범 옮김 (2002)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Mey, Jacob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이지은, 유호미, 전양주, 정희정 (2014)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임세인, 김연수 (2020) 「통번역대학원 학생의 자기평가능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211-233.
 임순정 (2014) 「통역 학습자들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분석」, 『번역학연구』 15(5): 181-220.
 임순정 (2017) 「통역 학습자의 노트테이킹 분석 및 교수법 제안」, 『통역과 번역』 19(1): 113-138.
 임순정 (2019a) 「CRIPD 분석을 통한 통역 학습 자가평가 도구의 제안: AB 순차통역 체크리스트」, 『프랑스어문교육』 64: 63-89.
 임순정 (2019b) 「AB 순차통역 재표현 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법 제안: CRIPD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3): 183-211.
 정혜연 (2017) 「통역은 단어치환이 아니다?: 동시통역에서의 단어치환 양상 연구」, 『통번역학연구』 21(2): 109-132.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7-276.
 Albl-Mikasa, Michaela (2008) '(Non-)Sens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ing* 10(2): 197-231.
 Albl-Mikasa, Michaela (2012) 'The importance of being not too earnest: a process-and experience-based model of interpreter competence'. in Ahrens, Arbara et coll. (dir.), *Dolmetschqualität in Praxis, Lehre und Forschung: Festschrift für Sylvia Kalina*, Tübingen: Narr, 59-92.
 Albl-Mikasa, Michaela (2013). 'Developing and cultivating expert interpreter competence',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17-34.
 Anderson, John Robert (199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New York: W.H. Freeman.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London & New York: Longman.
 Clifford, Andrew (2001) 'Discourse Theory and Performance-Based Assessment: Two Tools for Professional Interpreting', *Meta* 46-2: 365-378.
 Degueldre, Christian (2001) 'Le rôle de l'imagerie dans la communication réalisée par un interprète', *Meta* 47-1: 58-86.
 Gile, Daniel (1990). 'La traduction et l'interprétation comme révélateurs des

mécanismes de production et de compréhension du discours', *Meta* 35(1): 20-30.

Gile, Daniel (1992). 'Les fautes de traduction: une analyse pédagogique', *Meta* 37(2): 251-262.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Gile, Daniel (2001). 'L'évaluation de la qualité de l'interprétation en cours de formation', *Meta* 46(2): 379-393.

Gile, Daniel (2003) 'Justifying the Deverbalization Approach in th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lassroom', *Forum* 1(2): 47-63.

Gile, Daniel (2004). '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as a Translator Training Tool',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 2-20.

Gile, Daniel (2005) *La Traduction, la comprendre, l'apprendre*, Paris: PUF.

Gillies, Andrew (2005)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a short course*, Manchester: St. Jerome.

Gillies, Andrew (2013) *Conference Interpret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Guu, Ernst-August (1991)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B. Blackell.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 New York: Routledge.

Hymes, Dell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Pennsylvania UP.

Jones, Roderick (2002)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Kalina, Sylvia (2000) 'Interpreting competences as a basis and a goal for teach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3-32.

Kalina, Sylvia (2005) 'Quality Assurance for Interpreting Processes', *Meta* 50(2): 769-784.

Kremer, Benoît (2005) 'Réflexions d'un praticien sur une étape de la formation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approche méthodologique et pédagogique', *Meta* 50(2): 785-794.

Moser-Mercer, Barbara (1996) 'Quality in Interpreting: Some Methodological

Issue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7: 43-55.

Roy, Cynthia B (2000) *Interpreting as a Discourse Process*, Oxford & New York: Oxford UP.

Seleskovitch, Danica (1968)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problèmes de langage et de communication*, Paris: Lettres Modernes.

Seleskovitch, Danica (1975) *Langage, langues et mémoire. Etude de la prise de notes en interprétation consécutive*, Paris: Minard.

Seleskovitch, Danica (1986) *Interpréter pour traduire*, Paris: Didier érudition.

Seleskovitch, Danica and Marianne Lederer (2002) *Pédagogie raisonnée de l'interprétation*, France: Didier Érudition.

Mackey, William F. (1988) 'Texte, contexte et culture', *TTR* 1(1): 11-20.

<인터넷 자료>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

<https://aiic.net/>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예문 자료>

김부겸 (2018. 10. 25) 「아태지역 SDGs 심포지엄 개막연설」, 2021년 1월 4일 검색.

김홍길 (2019. 1. 27) 「전 세계가 한류로 생활하는 날 온다」, 『경남일보』, 2021년 1월 4일 검색.

삼성 그린시티 (2015. 11. 18)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 태양에너지」, 2021년 1월 4일 검색.

이낙연 (2018. 7. 21) 「WFP 식량원조 전달식 연설문」, 2021년 1월 4일 검색.

장유미 (2018. 12. 11) 「‘사업보국’ 강조한 이재현, 똑심으로 ‘문화 한류 주도」, 『아이뉴스24』, 2021년 1월 4일 검색.

최경숙 (2019. 3. 13) 「성인 발달장애인과 더 나은 포용사회」, 『문화일보』, 2021년 1월 4일 검색.

[Abstract]

Context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A Multimodal Analysis

Lim, Soon Je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notion and the role of context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Quantitative analysis of 7 students' IPDR(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executed as self assessment homework for Specialized Interpretation (Social Affairs & Culture and Science & Technology) was performed. The result was categorized in terms of subject knowledge/background knowledge, linguistic features and speech situation. The result reveals that interpretation is a complex cognitive behavior which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sense and a reformulation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 context. Thus, the interpreting student should be made aware that interpreting is a communicative/context sensitive approach and be trained to assume that interpreting requires some manipulation to make the communication effective.

▶ Key Words: Interpretation Education, Interpretation Skills, IPDR(Integrated Problem and Decision Reporting), Relevance, Context

▶ 주제어: 통역 교육, 통역 기술, 과정 중심 문제해결 보고서, 적절성, 맥락

임순정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soonjeunglim@gmail.com

관심분야: 통역교육, 문화 번역 및 교육, 기계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